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상호영향관계: 부모 양육 태도의 조절효과*

임하진** · 고한솔*** · 김보영****

초 록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발달적 관계를 종단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발달 관계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0) 중1 패널의 2차년도와 3차년도 데이터 중 성인매체 이용 경험이 있는 77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분석 결과,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자기회귀 효과가 유의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이 시간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시기의 사회적 위축은 성인매체몰입에 대한 유의미한 교차지연 효과를 보였으나, 성인매체몰입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교차지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집단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축의 교차지연 효과가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하였다. 학대 경험 집단에서 사회적 위축의 교차지연 효과가 유의미하였고, 비경험 집단에서는 이러한 교차지연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중학교 2~3학년 시기에 이전 시점의 사회적 위축이 이후 시점의 성인매체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가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성인매체몰입(Adolescents' pornography addiction),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Abusive parenting style), KCYPS 2010

*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학술대회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제1저자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제2저자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herena.kim@catholic.ac.kr

I. 서 론

최근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가 불법 음란물 5만 2천여 건을 조직적으로 유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음란물 카르텔’ 사건이 세간에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2011년부터 정부가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웹하드 업체들의 필터링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체의 유착으로 불법 음란물이 수년간 유포 및 재생산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동안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불법 음란물에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등학생의 45.1%, 중학생의 32.3%가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어(여성가족부, 2021), 상당수의 청소년이 성인매체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에 이르는 과정과 그로 인한 영향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비교적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 경험이 제한적인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실제와 같이 받아들일 우려가 있으며(Tsitsika et al., 2009), 음란물에 몰입할수록 성에 대한 허용성 및 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다(Peter & Valkenburg, 2010). 또한 성적 맥락에 대한 행동 스크립트에도 영향을 받아(Brown & L'Engle, 2009) 위험한 성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Owens, Behun, Manning & Reid, 2012), 이성에게 의도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사이버 섹스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은실, 김귀정, 김봉한, 2011). 청소년들의 성인인용 영상물 사용이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밝혀져 온 만큼 본 사안이 엄중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이용자의 태도와 행동적 경향성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어(Štulhofer, 2021; Wright & Bae, 2016),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의 유발 및 예측요인을 함께 종합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하는 요인은 사회적 위축이다. 과잉통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내재화 문제로 분류되는 사회적 위축은 고립감, 사회성 결핍 등으로 표현되며(Rubin, Coplan & Bowker, 2009) 청소년기에 발현되어 성인기 이후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위험요인이다. 사회적 위축은 스마트폰 중독(이영주, 박주현, 2014)과 중독의 의존 현상을 예측하는 요인(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이며, 반대로 미디어 매체의 문제적 사용이 이후 사회적 위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Nelson, Coyne, Howard & Clifford, 2016). 특히, 성인매

체의 문제적 이용자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참여자 대다수가 고립감을 보고하였고 음란물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정서적, 사회적 철수까지도 보고된 만큼 (Palazzolo & Bettman, 2020) 성인매체몰입은 사회적 위축의 원인으로서 또는 결과로서 두 현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두 변인의 직접적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동시에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와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해왔다. 그중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를 중점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는 비행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된다(박영숙, 임안나, 2017). 한편,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기원, 2014; 유현주, 2014), 학교 적응 수준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애, 정현희, 2018). 즉,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학대 경험 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성인매체몰입과 사회적 위축 각각이 부모 요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밝혀왔으나, 세 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않아 복합적인 논의를 제공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에 대한 지속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중독과 의존 현상이 심화되며 반대로 사회적 고립이 몰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향적 관계보다는 양방향적 관련성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관계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가 제시되어 왔지만 횡단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인 간 상호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학대 경험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도와 사회적 위축

성인매체몰입이란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이상준, 2003). 청소년기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성적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매체몰입의 가속화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위험성이 크다(심재웅, 2010).

성인매체에 노출될수록 도구적 성 인식, 혼외 성 허용성 등 사회적으로 청소년에게 용인되지 않는 성 의식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이건호, 강혜자, 2005). 또한 성인매체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과도하게 개방적인 성생활을 갖게 될 우려가 있고, 성인매체 이용에 기인한 수치심, 죄책감 등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정서적, 정신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양소정, 2011).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성인매체 접촉의 수준은 청소년의 성폭력과 성매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홍봉선, 남미애, 2012; 김재엽, 최지현, 이효정, 김기현, 2010), 인터넷 서비스 중 주로 성인매체를 이용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위험 성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다(조은숙, 2013). 또한 성인매체몰입은 시간에 따라 안정적인 특성이 있고(김경호, 2018), 성인매체에 몰입했다고 느낄수록 성인매체의 이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Grubbs, Wilt, Exline & Pargament, 2018)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선행 연구 결과들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인매체 접촉 및 사용량이 많은 청소년이 반드시 위험한 성행동 및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는 인과관계식 해석은 지양함이 바람직하다. 왜곡된 성 인식이 포함된 영상물로서 성인매체 자체의 문제적 특성이 청소년의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있어 성인매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매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구분한다. 나아가, 그러한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처벌하여 청소년들이 성인매체에 노출될 가능성을 제한한다. 성인매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를 근거로 볼 때, 청소년들의 성인매체 이용은 지위 비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위 비행으로서 성인매체몰입의 문제는 Hirschi가 제안한 사회유대이론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Hirschi(2002)는 일탈행위의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규범을 어기고자 하는 충동 역시 항상 존재하나, 사회통제의 결과로 사회와의 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유대감이 일탈 행위에 대한 동기를 억누르는 사회적 통제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타인과 긴밀한 애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와 연결감을 느끼며 가치적 규범에 대한 존중감을 가질수록 일탈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을 줄어든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유대를 약화하는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성인매체에 접촉 및 몰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그러한 변인으로 또래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경향성을 뜻하는 사회적 위축(Rubin et al., 2009)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청소년의 비행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성인매체몰입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 위축과 비행, 특히 비행 중에서도 성인매체몰입을 넓은 범위에서 아우르는 사이버 비행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 학대로부터 사이버비행에 이르는 경로에서 사회적 위축이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사이버비행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김선아, 2017). 또한 사회적 위축이 우울과 온·오프라인 비행 간 관계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매개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남은정, 배희분, 2019). 즉 우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위축이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비행은 증가하였으나 오프라인 비행은 감소하였다.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들은 대인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비행행위의 가능성이 보다 커진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들은 교사, 친구, 부모와의 애착이 유의하게 낮아지는데, 그 결과로 사이버 비행이 증가하게 된다(고은희, 김은정, 2014). 따라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강한 유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그만큼 사회적 통제 기제가 약하여 일탈 행위, 그중에서도 특히 매체를 통한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성인매체 및 음란물에 노출되었거나 중독된 청소년일수록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음란물에 중독된 남성 청소년들일수록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좋지 못했는데(금지현, 김동심, 정수인, 2016), 이는 주된 소속집단인 학교에서 주어진 일과에 소홀하며 대인 관계 역시 좋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음란물 접촉 빈도가 높은 청소년집단은 음란물 접촉 경험이 없는 청소년집단에 비하여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더 높았다(이정운, 이명화, 2003). 그뿐만 아니라 가정적 자기존중감이 유의하게 더 낮았는데, 이 점은 가족과의 유대관계, 혹은 가정적 안정감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경제 수준을 비롯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가정적 특성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관계 만족감 등 가족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 기인한 차이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성인매체몰입과 사회적 위축이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는 대부분은 시점을 고정한 후 변인 간 관계를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단적인 관계를 탐색하려 한다.

2. 양육 태도가 성인매체몰입도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조절효과

부모의 양육 태도란 자녀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태도 및 행동을 뜻하며(김신정, 김영희, 2007), 자녀의 정서 경험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김화연, 김희정, 2014; 문영숙, 2011) 자녀의 우울, 대인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와 관련이 깊다(구희정, 2013; 박윤선, 채규만, 2010). 특히, 부정적 양육 행동은 자녀에게 심리적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한 청소년은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김진아, 한귀례, 2014; 이은경, 이선희, 2017), 이러한 내면화 문제뿐 아니라 공격성 및 학교 폭력, 인터넷 중독 등 외현화의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도 커진다(양명숙, 조은주, 2011; 오윤선, 2012). 이러한 부모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인이 된 후의 성격 특성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부정적 양육 태도 중 학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을 모두 아우른다.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적 위축 및 비행과의 관련성은 다수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재엽, 남보영, 2012; 박기원, 2014; 박주희, 임양미, 2014; 신지현, 강현아, 2018). 그러나 학대 피해 청소년 모두가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대와 비행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우울 및 부모애착, 공격성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많았다(김현진, 김민,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데, 한 메타 연구에서는 학대가 다른 양육 태도보다도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비행에서 가장 큰 효과 크기를 가짐을 밝히기도 했다(윤혜미, 2017). 또한, 청소년 비행에 있어 부모와의 애착이 유의미한 보호 효과를 보이지 못했으나 부정적 양육방식은 높은 수준의 비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Tapia, Alarid & Clare, 2018), 부모의 학대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 비행(김현진, 김민, 2016; 박영숙, 임안나, 2017)과 인터넷 중독(Hsieh et al., 2016)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대인불안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더욱 위축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이영애, 정현희, 2018; 신혜영, 최해림, 2003).

지금까지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관계와, 이들 간 관계에서 부모의 학대적 양육방식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에는 상호적인 연쇄 과정의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1.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
- 연구문제2.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가?
- 연구문제3.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 가운데 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해 추출된 2,351명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반복,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2차), 2012년(3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성인매체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792명 중 상자도표에서 이상치로 판정된 14명의 자료를 제거한 후 778명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집단변수: 학대

본 연구는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로서 부모 학대를 측정한다. 총 4문항으로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문항을 역채점하여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학대 경험 수준이 높다는 뜻을 갖는다. 2차년도 학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38로 수용할 만한 내적일치도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2) 사회적 위축

사회 정서발달에 속하는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김선희와 김정연(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한 뒤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은 5문항으로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문항을 역 채점하였으므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위축된 수

준이 더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2차, 3차년도 시점별로 각각 .810, .877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인매체몰입도

성인용매체몰입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은정, 이세용과 오승근(2003)의 인터넷중독 척도 문항 중 유해 매체와 관련 있는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문항을 역 채점하였으므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성인매체몰입의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2차년도, 3차년도 시점별로 각각 .883, .877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성별, 컴퓨터 이용 빈도, 휴대전화 이용 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본 연구는 2차년도 성별, 컴퓨터 이용 빈도, 휴대전화 이용 빈도, 휴대전화 의존도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생의 성별에 따라 매체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에 차이가 있고(여성가족부, 2021), 컴퓨터 사용 시간 및 휴대폰 의존 정도는 사이버 비행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이창문, 문진영, 박주원, 2019) 해당 변인들을 통제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구분하였다. 컴퓨터 이용 빈도는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등 9가지 항목을 조사하였고, 휴대전화 이용 빈도는 가족과의 통화를 비롯한 9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모두 리커트 4점 척도(1점: 자주 사용 한다~4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로 이루어져 있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총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시형 외(2002)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그렇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된다. 휴대전화 의존도의 신뢰도 계수는 .900이었다. 성별을 제외한 통제변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이용 빈도 및 의존도가 높아지도록 역 채점하였다.

3. 분석 방법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3 및 AMOS 23을 사용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변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도의 시간적 선행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고, 사용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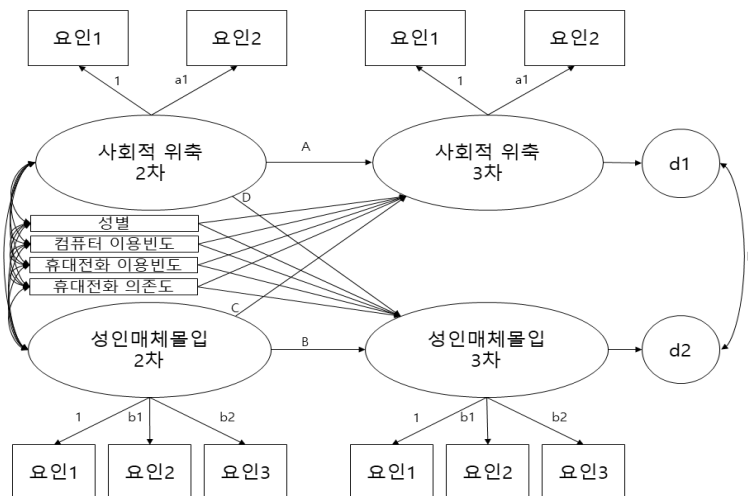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및 자기회귀교차지연 경로도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 위축은 1, 2, 3번 문항과 4, 5번 문항을 묶어 두 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고, 성인매체몰입도는 1, 4, 7번, 2, 5, 8번, 3, 6번을 묶어 세 개의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였다. 또한 성별, 컴퓨터 이용 빈도, 휴대전화 이용 빈도, 휴대전화 의존도를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여 3차 시점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각 변인의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a1과 b1, b2)을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측정동일성)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경쟁모형과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은 경우 동일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검증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을 이용

하였고, 표본 크기의 영향력을 줄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위해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GFI를 함께 고려하였다(홍세희, 2000). 특정 두 모형 간의 비교는 χ^2 차이 검증과 RMSEA, TLI, CFI, GFI 적합도 지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RMSEA의 경우 .06 이하, TLI, CFI, GFI의 경우 .95 이상일 때 모형이 좋은 적합도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CFI 값은 감소량이 .01를 넘지 않은 경우 동일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Cheng & Rensvold, 2002).

마지막으로, 학대적 양육방식에 따라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2차년도를 기준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적 양육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차년도 학대적 양육 태도의 측정치 평균의 표준화 값을 기준으로 K-means 분석을 실시하였다. K-means 분석은 비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으로 군집 내 분산은 최소화하면서 군집 간 분산을 최대화시켜 집단을 구분하는 최적분리기법이다(박연복, 이규민, 강상진, 2011). K-means 분석을 통해 도출된 2개의 집단을 학대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각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한 후 모형 적합도를 분석함으로써 형태동일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각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되 집단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 모형, 집단별로 각 변인의 측정동일성을 제약한 모형(a1, b1, b2), 공분산동일성을 제약한 모형(E), 각 변인의 자기회귀계수(A, B) 및 두 변인의 교차지연 계수(C, D)에 대해 구조동일성을 제약한 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한 후 비교하였다.

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낸 기술 통계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630명(81.0%), 여자가 148명(19.0%)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남녀 공학 구분에서는 남자 학교가 134명(17.3%), 여자 학교가 49명(6.3%), 남녀 공학 591명(76.4%)으로 남녀 공학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 성적에 대해 다수가 불만족(63.4%)이라고

응답하였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건강한 편(89.7%)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778)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630	81.0
	여	148	19.0
남녀공학 구분	남자 학교	134	17.3
	여자 학교	49	6.3
	남녀 공학	591	76.4
학교 성적 만족도	매우 만족	41	5.3
	만족	240	31.0
	불만족	335	43.3
	매우 불만족	158	20.4
주관적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함	221	28.5
	건강한 편임	474	61.2
	건강하지 못함	73	9.4
	매우 건강하지 못함	7	0.9

주. 결측치 제외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 및 2차년도와 통제변인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성인매체몰입도($r=.33^{***}$),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사회적 위축($r=.47^{***}$)은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2차년도 사회적 위축은 동일년도의 성인매체몰입과 정적 상관관계를($r=.07^{***}$), 3차년도 사회적 위축은 동일년도의 성인매체몰입과 정적상관관계를($r=.13^{***}$)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인의 왜도의 절댓값이 3을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댓값이 10

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판정하였다(Kline, 2015).

표 2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계수 및 기술통계량

변인	1	2	3	4	5	6	7	8
1. 성인매체몰입(2차)	1							
2. 성인매체몰입(3차)	.33***	1						
3. 사회적 위축(2차)	.07**	.13***	1					
4. 사회적 위축(3차)	-.00	.13***	.47***	1				
5. 성별(남)	.12***	.26***	.02	.02	1			
6. 컴퓨터 이용 빈도(2차)	.09***	-.01	.10***	.06	.08**	1		
7. 휴대전화 이용 빈도(2차)	.05	-.01	.00	.04	.13***	.36***	1	
8. 휴대전화 의존도(2차)	-.25***	-.08	-.01	.03	.22***	.26***	.42***	1
평균	1.56	1.56	2.23	2.27	.81	2.40	1.88	2.67
표준편차	0.57	0.54	0.67	0.73	.393	.50	.45	.72
왜도	0.61	0.25	0.00	-0.05	-1.58	.00	.32	-.22
첨도	0.15	0.44	-0.39	-0.45	.50	-.14	.26	-.27

주. * $p < .05$, ** $p < .01$, *** $p < .001$

3.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성

본 연구에서는 성인매체몰입도와 사회적 위축 간의 지속적 특성과 역동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래의 순서대로 측정동일성에 대한 제약을 차례대로 추가하여 모형 비교를 하였다.

- 모형1: 그림 1의 연구모형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기본모형)
- 모형2: 모형 1에 추가하여 사회적 위축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적재치(α_1)가 두 시점에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시간에 흐름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해석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 모형3: 모형2에 추가하여 성인매체몰입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적재치(b1, b2)가 두 시점에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인매체몰입의 해석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표 3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TLI	CFI	GFI
모형1	154.614***	53	.050	.964	.979	.972
모형2	155.341***	54	.049	.964	.979	.972
모형3	159.633***	56	.049	.965	.978	.971

모형을 순차 비교한 결과, 모형1의 적합도 지수는 TLI=.964, CFI=.979, GFI=.972, RMSEA=.050로 기저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1과 모형2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지수가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았고 자유도에 비하여 χ^2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모형2와 모형3을 비교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았고 χ^2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였다. 종합하여, 자유도가 가장 높음에도 합치도 수준이 양호한 모형3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표 4

자기회귀교차지연 최종 모형의 구조계수 결과

경로	비표준화 구조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구조계수	C.R
사회적 위축(2차) → 사회적 위축(3차)	.616	.050	.558	12.255***
성인매체몰입(2차) → 성인매체몰입(3차)	.272	.036	.313	7.475***
사회적 위축(2차) → 성인매체몰입(3차)	.078	.031	.098	2.516**
성인매체몰입(2차) → 사회적 위축(3차)	-.037	.046	-.031	-.805

주. * $p < .05$, ** $p < .01$, *** $p < .001$

최종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2차년도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은 각각 3차년도 사회적 위축($b=.616, p<.001$)과 성인매체몰입($b=.272,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차년도 사회적 위축이 3차년도 성인매체몰입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 역시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078, p<.01$). 반면 2차년도 성인매체몰입이 3차년도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다집단 분석 결과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를 기준으로 K-means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최종 군집중심점이 1.15과 -.46이었으며 각 군집에 187명, 591명이 속하였다. 이들을 각각 학대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최종모형에 대해 학대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형태동일성 가정에 대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각 적합도지수의 기준치를 충족하여 최종모형이 두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

두 집단의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

집단	χ^2	df	RMSEA	TLI	CFI	GFI
학대 경험 청소년	71.644**	53	.043	.971	.983	.948
비경험 청소년	142.448***	53	.053	.957	.975	.967

- 모형 A: 학대 경험, 비경험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지만 집단 사이의 동일화 제약은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baseline model)이다.
- 모형 B: 사회적 위축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적재치가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이러한 제약은 사회적 위축에 대한 해석이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모형 C: 성인매체몰입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성인매체몰입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적재치를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이러한 제약

은 성인매체몰입도에 대한 해석이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모형 D: 오차 공분산이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 모형 E: 사회적 위축의 자기회귀 계수가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즉 사회적 위축의 자기회귀 효과가 각 집단에서 동일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모형이 교차지연모형 검증과 함께 자기회귀 모형 검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한 제약이다.
- 모형 F: 성인매체몰입도의 자기회귀 계수가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성인매체몰입의 자기회귀 효과가 각 집단에서 동일한지 평가하기 위함이며, 모형 E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모형 G: 2차년도의 성인매체몰입이 3차년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계수가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이전 시점의 성인매체몰입이 이후 시점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효과가 각 집단에서 동일한지 평가하는 것이며, 교차지연모형 검증을 위해 적용한 제약이다.
- 모형 H: 2차년도의 사회적 위축이 3차년도의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계수가 집단별로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이전 시점의 사회적 위축이 이후 시점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효과가 각 집단에서 동일한지 평가하는 것이며, 모형 G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위 8개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기저 모형에서 모형 H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모형적합도는 RMSEA, TLI, CFI, GFI값을 참고하여 비교하였고, 각 모형이 내재된(nested) 관계에 있어 χ^2 차이검증을 적용하였다. 첫째, 측정변수의 요인계수가 학대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 간에 동일한지 살펴보기 위해 모형 A, B, C를 순차 비교한 결과 RMSEA, TLI, CFI 값이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았고, 자유도 차이에 비하여 χ^2 의 값이 유의미하지 않았다($\Delta\chi^2(\chi^2_{.05}(1)=3.841, \Delta df=1)$).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성립하였다. 둘째, 모형 C와 모형 D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간 적합도 지수가 동일하고 χ^2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Delta\chi^2=.859(\chi^2_{.05}(1)=3.841, \Delta df=1)$) 집단 간 오차분산 동일성이 성립하였다. 셋째, 모형 D, E, F를 순차 비교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았고, χ^2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Delta\chi^2(\chi^2_{.05}(1)=3.841, \Delta df=1)$). 따라서 모형 D

와 모형 E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 위축의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동일성이, 모형 E와 모형 F의 비교를 통해 성인매체몰입의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집단 간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넷째, 모형 F와 G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고 χ^2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Delta\chi^2=.828$, $\chi^2_{.05}(1)=3.841$, $\Delta df=1$). 따라서 사회적 위축에서 성인매체몰입으로 가는 교차지연 계수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모형 G와 모형 H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았으나 자유도에 비하여 χ^2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5.459$, $\chi^2_{.05}(1)=3.841$, $\Delta df=1$). 따라서 사회적 위축이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효과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하면, 동일화 제약을 계속 추가했을 때 χ^2 차이검증이 유의미하지 않고 적합도가 양호하며 가장 간명한 모형인 모형 G가 최종 모형으로 결정되었다.

표 6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에 대한 다집단 분석 결과

모형	χ^2	df	RMSEA	TLI	CFI	GFI
모형 A	169.359***	76	.040	.969	.978	.963
모형 B	170.599***	77	.040	.969	.978	.962
모형 C	171.304***	79	.039	.970	.979	.962
모형 D	172.163***	80	.039	.971	.979	.962
모형 E	172.182***	81	.038	.971	.979	.962
모형 F	173.817***	82	.038	.971	.979	.962
모형 G	174.645***	83	.038	.972	.979	.962
모형 H	180.104***	84	.038	.971	.978	.961

다음으로 모형 G에 대한 구조계수 결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두 집단 모두에서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자기회귀 효과를 확인하였다. 한편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교차지연 효과는 집단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비경험 집단에서는 교차지연 계수들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대 경험 집단에서 2차년도 사회적 위축이 3차년도 성인매체몰입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다집단 분석 최종 모형의 구조계수 결과

집단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C.R
학대 경험 집단	사회적 위축(2차) → 사회적 위축(3차)	.637	.043	.497	14.729***
	성인매체몰입(2차) → 성인매체몰입(3차)	.296	.037	.313	8.035***
	사회적 위축(2차) → 성인매체몰입(3차)	.261	.086	.237	3.036**
	성인매체몰입(2차) → 사회적 위축(3차)	-.034	.047	.031	-.727
비 경험 집단	사회적 위축(2차) → 사회적 위축(3차)	.637	.043	.574	14.729***
	성인매체몰입(2차) → 성인매체몰입(3차)	.296	.037	.297	8.035***
	사회적 위축(2차) → 성인매체몰입(3차)	.045	.034	.058	1.321
	성인매체몰입(2차) → 사회적 위축(3차)	-.034	.047	-.024	-.727

주. * $p < .05$, ** $p < .01$, *** $p < .001$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자기회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2차년도와 사회적 위축이 3차년도의 성인매체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적 양육 태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년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은 각각 3차년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이 시간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선행 연구(김경은, 2017; 김경호, 2018)와 맥을 같이 하며, 청소년의 문제 양상이 일시적인 형상이 아님을 인식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사회적 위축은 우울, 자아존중감, 공격성, 부모 애착 등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진 한편, 사회적 위축의 소극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밝혀진 바 있다(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유현주, 2014). 즉, 사회적

위축은 병존하는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또 그러한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시간적 안정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비롯하였다는 해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각된 성인매체 몰입도가 높을수록 성인매체 이용량이 증가한다고 보고된다(Grubbs et al., 2018). 따라서 성인매체에 몰입할수록 실제적인 이용량이 증가하여 또다시 성인매체에 접근하는 순환적인 과정이 발생한다. 성인매체몰입의 시간적 안정성 역시 이러한 과정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 횡단 연구로 밝혀진 결과를 적용하여 각 변인의 종단적 특성을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자기회귀 효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학대적 양육 태도의 경험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위축은 부모 애착과 상호 연관성이 높고(신수민, 정규형, 2016), 성인매체몰입에는 부모-자녀 관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진 바 있으나(Parkes, Wight, Hunt, Henderson & Sargent, 2013) 학대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적 안정성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횡단적으로는 양육 태도 및 부모와의 관계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종단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영향요인이 존재하거나, 그 자체로 지속하는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횡단 연구에서는 밝히기 어려운 특성을 확인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2차년도 사회적 위축은 3차년도 성인매체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나, 2차년도 성인매체몰입은 3차년도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할수록 지위 비행 중 하나인 성인매체 이용에 더욱 몰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또래로부터 소외된다고 느낄수록 성인매체몰입도가 증가하며(양경선, 김혜성, 2017), 외로움 같은 부정 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음란물 중독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Butler, Pereyra, Draper, Leonhardt & Skinner, 2018)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성인매체몰입이 사회적 위축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성인매체가 호기심의 대상이며, 청소년의 매체이용 습관은 또래 집단의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이성으로부터의 인기에 대한 욕구가 크고 또래 압력을 더 많이 느낄수록 핸드폰을 통한 성인매체 사용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보고된다(Vanden

Abeele, Campbell, Eggermont & Roe, 2014). 즉, 또래 무리에 소속되어 인기를 끄는 것이 성인매체 이용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경향성이 반영되어 성인매체몰입이 반드시 사회적 위축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2차년도 사회적 위축이 3차년도 성인매체몰입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학대적 양육의 경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대가 후기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며(Watts, 2017), 비학대적인 양육 태도를 통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사회적 위축이 성인매체몰입으로 이어지는 특정 시기의 연쇄효과를 차단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피학대 경험은 가정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게 하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형진, 황동진, 2015). 이로 인해 때때로 매체 의존성이 높아져 휴대전화에 몰입하거나(김재협, 황현주, 2016; 이형진, 황동진, 2015), 인터넷 음란물에 더 의존하게 된다(이상학, 정구철, 2014). 즉, 부모의 학대는 자녀가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함과 동시에(배영광, 권경인, 2018) 안정감을 주는 의존 대상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여 그 대체재로서 매체에 몰입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부모의 학대가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며(전란영, 김희화, 2016),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박영숙, 임안나, 2018)를 미루어 보아 학대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인매체몰입에 이르렀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 문제는 또래 관계와 같은 다양한 발달맥락적인 환경적 요인의 결과물로 나타나기에(민원홍, 손선옥, 2017), 사회적 위축이 지위 비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다차원적인 요인들이 개입했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이 초기 청소년기에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개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의 경우 주도적으로 나서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래나 교사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둘러싼 기존 사회·환경적 요소를 통해 개입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61.8%가 매체이용 및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여성가족부, 2018) 현행 관련 교육 내용의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교육은 교육 과정상 질병, 약물 오남용, 흡연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보건 교육의 성과 건강이라는 한 쪽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보건교육 기준은 3개월에 1회 이상에 불과하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이와 같이 관련 교육이 제한적이기에, 지속적이고 계열성 있는 성교육 실시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을 담당하는 스마트쉼센터가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예방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 이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성인매체 중독이 항상 인터넷 중독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인터넷 중독의 한 하위요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관련이 있는 하나의 큰 주제로 바라보고,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위축이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볼 때, 단순한 성 교육 보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성인매체몰입 예방 및 중독 관리를 함께 다루어줄 새로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집단 분석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때 지각된 부모 양육 태도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 위축과 성인매체몰입의 문제를 청소년만의 문제로 간주하여 개입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입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학대에 대한 예방 및 개선책이 필요하다. 2017년도 중앙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볼 때 전체 행위자의 22.2%에게 양육 태도 및 방법이 부족하다고 보고되어(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부모 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관련법을 근거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교육이 임신, 출산기와 미취학 자녀 양육기에 집중되어 있어(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표본은 남성이 81% 여성이 19%로 응답자의 성별 편포가 심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각

시점의 성인매체몰입도 평균치가 모두 1.56에 불과하여 성인매체에 노출되었더라도 몰입도가 크지 않은 청소년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본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집단으로 확장하여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 태도 중 학대를 기준으로 연구 대상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학대를 측정한 척도에 응답한 대상은 양육의 주체인 부모가 아닌 청소년 자녀들이며, 따라서 청소년이 지각한 학대라는 점에서 실제 부모의 양육 태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양육환경이 다르게 지각되었을 경우 자녀 변인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양육에 대한 제언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단기종단 연구로 2개 시점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에 이르는 시기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만을 설명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현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적 위축이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학년과 나이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를 폭넓게 아우르기 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희, 김은정 (2014).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 위축, 주의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애착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248-248.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2017년 학교 성교육표준안 운용의 실제 직무연수**.
- 구희정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295-315.
- 금지현, 김동심, 정수인 (2016). 남자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 스마트폰 의존도, 음란물중독, 학습활동, 교우관계의 관계규명. **청소년학연구**, 23(4), 219-241.
- 김경은 (2017).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또래소외 간의 종단적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3), 391-399.
- 김경호 (2018). 청소년의 공격성과 성인매체 몰입 간의 양방향 관계의 검증: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43, 27-47. doi:10.20993/jSSW.43.2
- 김선아 (2017). 고등학교 청소년의 부모학대, 우울감,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성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3, 147-163. doi:10.14251/crisisonomy.2017.13.8.147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은실, 김귀정, 김봉한 (2011).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관계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6), 8-17.
- 김은정, 이세용, 오승근 (2003).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1), 125-139.
- 김재엽, 최지현, 이효정, 김기현 (2010).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성폭력 가해간 관계 분석: 성별에 따른 경로차이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31, 79-106.
- 김재엽, 황현주 (2016). 아동학대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과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53, 105-133.

- 김진아, 한귀례 (2014). 부모양육 태도와 정서문제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15(6), 2379-2399.
- 김준경, 조민규 (2014). 학대경험 수준에 따른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267-290.
- 김현진, 김민 (2016).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공격성과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5), 97-122.
- 김화연, 김희정 (2014). 청소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또래관계: 자아탄력성과 부모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1), 393-414.
- 남은정, 배희분 (2019). 청소년의 우울이 온·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353-375.
- 문영숙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 태도가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7(1), 22-30.
- 민원홍, 손선옥 (2017).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의 발달 궤적에 대한 부정적 또래관계의 영향: 부모지도감독의 조절효과 검증. **미래청소년학회지**, 14, 75-99.
-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1), 1-15. doi:10.5723/KJCS.2014.35.1.1
-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doi:10.15709/hswr.2017.37.2.72
- 박연복, 이규민, 강상진 (2011). 군집분석을 이용한 수준설정 방법과 타당성 연구. **교육평가연구**, 24, 645-664.
- 박영숙, 임안나 (2017). 부모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매개효과로. **교정복지연구**, 49, 59-85.
- 박윤선, 채규만 (2010). 부모의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상담연구지**, 18(2), 133-147.
- 박주희, 임양미 (2014).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사에 대한 친밀감과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3), 87-110.
- 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1), 151-169.
- 배영광, 권경인 (2018). 초심여성청소년동반자의 위험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9(2), 149-171. doi:10.15703/kjc.19.2.201804.149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2020학년도 학교 보건 기본방향: 학교 보건 분야**.
- 신수민, 정규형 (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반건강이론에 근거한 성인용 매체 이용 빈도 및 몰입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52, 7-34.
- 신지현, 강현아 (2018).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4(0), 1-22.
- 신혜영, 최해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초등학교 고학년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95-307.
- 심재웅 (2010).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시기가 음란물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젠더 & 문화**, 16, 75-104.
- 안혜원, 이재연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 감독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0(1), 77-88.
- 양경선, 김혜성 (2017).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성인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206-206.
- 양명숙, 조은주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 태도, 감독과 통제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339-351. doi:10.4094/jkachn.2011.17.1.22
- 양소정 (2011).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노출과 성 허용성에 관한 연구: O₁-S-O₂-R 모델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6, 125-151.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
- 여성가족부 (202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
- 오윤선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가 청소년 분노 및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0(3), 91-104.
- 유현주 (2014).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및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2), 417-446.
- 윤혜미 (2017). 아동학대유형과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복지연구**, 48(1), 173-206.
- 이건호, 강혜자 (2005).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3), 23-40.

- 이상준 (2003).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341-364.
- 이상학, 정구철 (2014). 지각된 부모로부터의 소외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 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425-425.
-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이세용, 김선남, 배진한 외 (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영애, 정현희 (2018).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 유무 및 지속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5(1), 317-339. doi:10.21509/KJYS.2018.01.25.1.317
- 이영주, 박주현 (2014). 이용 동기와 자기 통제력 및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8), 459-465.
- 이은경, 이선희 (2017). 부모의 과잉간섭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2(4), 543-563. doi:10.13049/kfwa.2017.22.4.1
- 이정윤, 이명화 (2003).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의 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1(1), 32-41.
- 이창문, 문진영, 박주원 (2019). 매체환경과 청소년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인매체몰입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7(4), 365-379.
- 이형진, 황동진 (2015).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3(1), 5-31.
- 전란영, 김희화 (2016).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2), 57-67.
- 조예진, 주해원, 현명호 (2015). 부정적 양육과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비행피해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2), 59-81. doi:10.14816/sky.2015.26.2.59
- 조은숙 (2013).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선호성과 위험 성행동 간의 관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10), 291-314.
- 최정아 (2014).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또래관계,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377-378.
- 김소영, 송효진, 선보영 (2016).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홍봉선, 남미애 (2012).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정도가 성폭력과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0, 9-39.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Brown, J. D., & L'Engle, K. L. (2009). X-rated: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associated with US early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edia. *Communication Research*, 36(1), 129-151. doi:10.1177/0093650208326465
- Butler, M. H., Pereyra, S. A., Draper, T. W., Leonhardt, N. D., & Skinner, K. B. (2018). Pornography use and loneliness: A bidirectional recursive model and pilot investiga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44(2), 127-137. doi:10.1080/0092623X.2017.1321601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doi:10.1207/S15328007SEM0902_5
- Grubbs, J. B., Wilt, J. A., Exline, J. J., & Pargament, K. I. (2018). Predicting pornography use over time: Does self-reported "addiction" matter?. *Addictive Behaviors*, 82, 57-64. doi:10.1016/j.addbeh.2018.02.028
- Hirschi, T. (2002). *Causes of delinquency*.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Hsieh, Y. P., Shen, A. C. T., Wei, H. S., Feng, J. Y., Huang, S. C. Y., & Hwa, H. L. (2016). Associations between child maltreatment, PTSD,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Taiwanes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6, 209-214. doi:10.1016/j.chb.2015.11.048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Nelson, L. J., Coyne, S. M., Howard, E., & Clifford, B. N. (2016). Withdrawing to a virtual world: Associations between subtypes of withdrawal, media use, and maladjustment in emerging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52(6), 933. doi:10.1037/dev0000128
- Owens, E. W., Behun, R. J., Manning, J. C., & Reid, R. C. (2012). The impact of Internet pornography on adolescents: A review of the research.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9(1-2), 99-122. doi:10.1080/10720162.2012.660431
- Palazzolo, F., & Bettman, C. (2020). Exploring the Lived Experience of Problematic Users of Internet Pornography: A Qualitative Study.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27(1-2), 45-64. doi:10.1080/10720162.2020.1766610
- Parkes, A., Wight, D., Hunt, K., Henderson, M., & Sargent, J. (2013). Are sexual media exposure, parental restrictions on media use and co-viewing TV and DVDs with parents and friends associated with teenagers' early sexual behaviour?. *Journal of Adolescence*, 36(6), 1121-1133. doi:10.1016/j.adolescence.2013.08.019
- Peter, J., & Valkenburg, P. M. (2010). Processes underlying the effects of adolescents' use of sexually explicit internet material: The role of perceived realism. *Communication Research*, 37(3), 375-399. doi:10.1177/0093650210362464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doi: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42
- Štulhofer, A. (2021). Is Male Adolescents' Sexual Aggressiveness Better Explained by Prior Pornography Use or Callousness? A Brief Report. *Sexual Abuse*, 33(3), 361-373. doi:10.1177/1079063220952777
- Tapia, M., Alarid, L. F., & Clare, C. (2018). Parenting styles and juvenile delinquency: Exploring gendered relationships. *Juvenile and Family Court Journal*, 69(2), 21-36. doi:10.1111/jfcj.12110
- Tsitsika, A., Critselis, E., Kommas, G., Konstantoulaki, E., Constantopoulos, A., & Kafetzis, D. (2009). Adolescent pornographic internet site use: A multivariate regression

- analysis of the predictive factors of use and psychosocial implications, *CyberPsychology & Behavior*, 12(5), 545-550. doi:10.1089/cpb.2008.0346
- Vanden Abeele, M., Campbell, S. W., Eggermont, S., & Roe, K. (2014). Sexting, mobile porn use, and peer group dynamics: Boys' and girls' self-perceived popularity, need for popularity, and perceived peer pressure. *Media Psychology*, 17(1), 6-33. doi:10.1111/jfcj.12110
- Watts, S. J. (2017). The link between child abuse and neglect and delinquency: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bonds. *Victims & Offenders*, 12(5), 700-717. doi:10.1080/15564886.2016.1155190
- Wright, P. J., & Bae, S. (2016). Pornography and male socialization. Wong, Y. J., & Wester, S. R (Eds), *APA handbook of men and masculinities* (pp.551-56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10.1037/14594-025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pornography addiction in early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itudes

Lim, Hajin* · Ko, Hansol* · Kim, Bo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social withdrawal and pornography addiction among adolescents, and to examine the role of parental abuse with respect to this relationship. The second and third wave data of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were used for the purposes of this analysis and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comprised 778 middle school students with experience of using sexually explicit media. The results based on multivariat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indicated that social withdrawal and pornography addiction had an autoregressive effect, confirming that social withdrawal and pornography addiction were stably sustained over time. Social withdrawal had also a significant cross-lagged effect on pornography addiction, but pornography addicti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cross-lagged effect on social withdrawal. Results from multigroup analysis revealed that the cross-lagged effect of social withdrawal was moderated via parental abuse: that is, the effect remained significant among the abused group, in contrast to the non-abused 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ed that the problem of social withdrawal in grades 8 and 9 may contribute to pornography addiction. It also implied that parental abuse c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pornography addicti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s' pornography addiction, social withdrawal, parenting style, KCYPs 2010

투고일: 2021. 1. 20, 심사일: 2021. 6. 4, 심사완료일: 2021. 6. 15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Psychology